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갈 때
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로운
우리만의 경쟁력이 피어납니다.

SeAH

세아그룹

2018 MAY / JUN

Vol. 375

세아가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2018 MAY / JUN

기본 + 혁신 = 경쟁력

SECTION 1

희망 더하기

04 - 07 테마 인터뷰

인간자연생명력연구소 서광원 소장

08 - 09 테마 토크

지원 부서 담당자들과의 만남

10 - 13 테마 스토리

진화하는 기업의 힘, 경쟁력

14 - 21 세아 포커스

제19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

2018 그룹 신입 팀장 교육

디지털 토크 & 디지털 캠프

22 - 25 세아 뮤지엄

세아의 광고

26 - 29 글로벌 리포트

Foshan SeAH Precision Metal

SECTION 2

마음 나누기

30 - 33 팀플레이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 TF팀

34 - 37 철의 장인

세아베스틸 품질보증2팀 함한섭 기장

38 - 41 세아 로드

강원도 원주

42 - 45 원데이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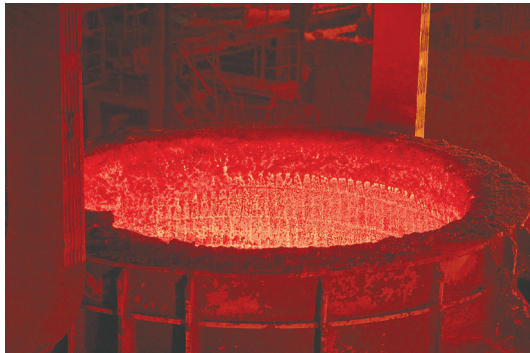
로푸드 식초 만들기

46 - 47 헬스케어

복부 운동

48 - 49 세아 뉴스

50 - 51 사우동정 / 독자엽서



COVER STORY

꽃의 여왕으로 꼽히는 장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등

수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이 계절, 세아인 여러분은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이번 호 세아가족 표지는 세아베스틸에서 촬영하였습니다.

1600℃의 전기로에서 뜨겁게 끓어오른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는 래들(LADLE)의 모습입니다.

쇳물의 열기를 간직한 래들 내부의 모습이

이 세상 그 어느 꽃의 빛깔보다 눈부시게 보이네요.

쇳물 속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듯

불필요한 습관을 덜어내고 조금 더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을 뜨겁게 단련할 때,

거듭된 노력으로 혁신을 이어갈 때, 우리의 경쟁력도 더 크게 자랍니다.

시들지도 꺾이지도 않는 우리만의 경쟁력이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발행일 2018년 6월 19일(통권 375호)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 733 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 464 6161 사진 B.A.M Studio 02 548 1026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때 인간자연생명력연구소 서광원 소장

너나 할 것 없이 작금의 경영환경을 위기라고 말한다. 이대로 괜찮을까? 남들과 같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과연 승산이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정글과 같은 초경쟁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서광원 소장이 자연 생명체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화생태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생명력이 넘치는 리더십을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언론계를 떠나 생존 경영연구소(인간자연생명력연구소의 전신)를 설립했습니다. 리더십은 조직에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조직의 본질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고, 무엇보다 인간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 생명의 역사를 역추적하다 보니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생태계의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적응,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경쟁력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 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답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만의 자리잡기, 즉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태학에서는 니치(Niche), 경영학에서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 자리잡기는 어느 생명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저 너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적응은 완료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고 과정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적응을 멈추는 셈이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해 주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조언해주신다면?

그런 분들께 미시시피 늪지대에 사는 악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는 미시시피의 늪은 나뭇가지나 이런저런 부유물들이 여기저기 걸려 물길이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노련한 악어들은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막힌 물길을 뚫어준다고 합니다. 느리게나마 물이 흐르지 않으면 더운 기후에 고인 물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잇감이 오지 않을 뿐더러 자신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가 풍부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물길을 손질하는 것이지요.

Profile 경향신문과 이코노미스트 등에서 경영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축적해온 삶의 이치와 경영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생존 경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를 4~5번 다녔이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강의는 누적 조회수 30만 회를 훌쩍 넘었으며, 기업 중역들로부터 2년 연속 대표 강사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사장으로 산다는 것>, <사장의 자격>, <사자도 굶어죽는다>,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 등이 있다.

악어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늘 새로운 물을 흐르게 하듯,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멈추는 순간 살아 있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것, 즉 혁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살아 있음을 만들어내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마리 노련한 악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인 물에 물꼬를 터주어야 합니다.

치열한 기업 경쟁 시장은 정글에 자주 비유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법칙이 기업 경쟁 환경에서도 통용된다고 보시지요?

생태계에서도 빠르고, 힘세고, 큰 동물만이 항상 생존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거대하고 힘센 존재인 공룡은 이미 6,500만 년 전 멸종했습니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존재는 지금 화석만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느리고, 약해 보이고, 작아도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강한 적응력으로 자신만의 분명한 삶의 해법, 다시 말해 생존 전략을 만들어낸 생명체를 강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찰스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생명체들이 진화한 역사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삶의 기본을 제대로 갖췄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생사가 엇갈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업 역시 당장 얻을 수 있는 비법이나 곧바로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라 적응력 같은 본질적인 힘에서 생사가 결정됩니다.



혁신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방식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생명체 중에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노련한 거미들은 자신의 거미줄로 지은 훌륭한 집에 만족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이 삶의 네트워크를 흔듭니다. 왜 어렵게 지어 놓은 멀쩡한 집을 흔들까요? 흔들어보면 어디가 손상됐는지 금방 알 수 있고, 거미줄에 붙는 부유물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붙으면 거미줄이 무거워지면서 쳐지고 진동 감지력이 줄어들며 거미줄의 존재 또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거미줄에 맺힌 아침이슬이나 빗물은 우리에게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거미줄의 끈끈함을 약화시키므로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거미에게 거미줄 흔들기는 알게 모르게 쌓이는 삶의 더께를 털어내는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변동성이 심한 시대일수록 어떤 우약스러운 손이 우리를 흔들기 전에 스스로 흔들어봐야 어디가 헐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흔들어 보고, 미래를 두드려보는 것이야말로 삶을 건강하게 하는 변함없는 방법이자 지속적인 혁신의 방식입니다.

익숙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미리미리 털어내고, 낯설지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것, 익숙한 것에 탁월해지기보다는 탁월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폐쇄적인 조직이 마주하게 될 위험은?

고립된 섬은 그 안의 동물들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니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조직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만 경쟁하는, 특히 기득권을



가진 계층과 계급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조직은 반드시 퇴보합니다. 고인 물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눈치 보기가 성행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뭔가를 잘하려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입니다. 잘못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살 수 있기에 다들 성장보다 처신에 신경을 씁니다. 청정한 호수는 항상 새로운 물이 흘러드는 덕분에 맑음을 유지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살아 있다는 건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늑대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거리는 보통 3~4km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거리의 열 배가 훨씬 넘는 42.195km를 달립니다. 자기만의 속도로 끝까지 달리는 지독함이야말로 이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지요.

인간의 발바닥은 달릴 때의 충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움푹 팬 아치형으로 진화했습니다. 땀샘이 없는 개는 달릴수록 상승하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허를 길게 빼고 혈떡거리는 데 비해, 우리는 300만 개에 이르는 땀샘으로 체온을 조절하며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달리기, 그 중에서도 오래달리기를 핵심 역량으로 선택한 유일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역시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속도로, 목표와 꿈을 향해 끝까지 끈질기게 달리는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미리미리 털어내고,
낯설지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것,
익숙한 것에 탁월해지기보다는
탁월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원칙은 회사를 움직이는 기본이자 기준 지원 부서 담당자들과의 만남



기본과 원칙이야말로 필수 덕목

세아 ESAB 경영관리팀 김영환 차장

지원 부서의 업무는 회사의 보조적 업무에 그치지 않고 지속 성장을 위한 중점 업무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만큼 지원 부서 담당자는 정확한 잣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객관적이며 남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관적인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지원 부서의 성격상 동일 업무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본을 준수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테니까요.

구성원들의 열정을 지원하는 역할

세아메탈 업무지원팀 민지홍 대리

지원 부서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열정을 지원하며 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 지원팀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부서로 생소한 일을 맡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력이 좋아야 하지요. 다른 팀과의 협업, 직원들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 능력도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 부서 담당자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준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지식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원칙에 의해 공의(公義)가 지켜지고,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더 확실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비단 놀라운 혁신이나 기술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칙을 바탕으로 둔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야말로 위기에 흔들림 없는 기업의 전제 조건이자 경쟁력의 기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각 부서의 업무 진행을 돕는 지원 부서 담당자들을 만나 그들의 업무 원칙과 비결을 들어본다.

선두에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박종재 사원

오는 7월 1일 세아씨엠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업무 지원팀의 역할은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영속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선두에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거기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서 업무에는 '상시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규정을 비롯하여 원칙을 준수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구성원 간 불신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원 업무는 경영활동의 근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 장승호 대리

지원 부서 업무는 회사 경영활동의 근간입니다. 회사가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여 경영 질서 체계 확립과 전사적인 조직 활성화를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세부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자산관리, 사내외 활동 및 전반적 후생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지원 부서 업무는 상대방, 유관 부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고객의 불만과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객 지향성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원칙은 회사를 움직이는 기본이자 기본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논란 없는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COMPETITIVENESS

#3 : 경쟁력

진화하는 기업의 힘 : 경쟁력

기술 변화가 기존의 경쟁 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며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불확실성이 표준이 된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할까? 기본에 바탕을 둔 혁신에서 그 답을 찾는다.

오래 살아남는 힘이 경쟁력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 기업들은 다른 후발 업체들이 자신들을 따라잡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느긋하게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여유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까지 잘 해왔다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위치를 계속해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이 그 기업의 독특한 강점을 모방해서 금세 시장 지배권을 빼앗을 수 있다. 모바일 혁명으로 경제와 사회의 운영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변화는 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다.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일궈내려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기업도 계속해서 진화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규모에 상관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회사가 생겨나고 또 사라져 간다.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반짝 빛을 내는 회사도 물론 있다. 문제는 그 반짝임을 오래 지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기본은 그 자체로 커다란 경쟁력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최고경영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 수많은 도전과 성공, 그리고 실패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공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먼저 좋은 흙을 찾아 나선다.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강하며, 고수라고 해도 기본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기본이 초보에게나 필요한 입문 과정이나 기초가 아니라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혁신도 탄탄하게 구축된 기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이 부족한 사람은 응용문제가 나오면 처음 보는 문제라 풀기 어려워 하지만 기본을 충실하게 갖춘 사람은 공식을 응용하여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상생활 또는 회사 생활에서 기본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를 올려주거나 남들에게 주목 받도록 해주는 요행이 아니다. 오히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지리한 과정이다. 하지만 기본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기본기가 모자란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된다. 반면 기본을 제대로 익히고 지키는 사람은 차분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나는 10대부터 미래에는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예측하고, 상상한 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혁신에 능한 기업들은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핵심 제품의 범용화 위협이나 신규 진입 기업 및 최신 기술과 경쟁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들의 혁신 전략은 상황이 좋은 나쁘든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준비하고 앞서가는 것이다.

기본기가 모자란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지만, 기본을 제대로 익히고 지키는 사람은 차분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No.1이 아닌 Only One이 경쟁력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쟁 대열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남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경쟁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다가 따라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독자적인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 그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갖는 것이다. 볼록렌즈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면 불씨도 일으킬 수 있듯이 빠르고 신속하게 기업의 핵심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하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뭐든지 다해서 남이 잘 된다는 것에 줄서려는 노력이나 지난날의 사고를 버리고, 무엇으로 Only One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술, 예술, 학문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는 특유의 강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강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다. 기업의 혁신도 마찬가지다. 혁신을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점을 강화하여 경쟁 시장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혁신에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에는 거부감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성공은 점점 멀어진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며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가야 할 때다.

참고 서적 : 이성동 <오색 마음 소통>



함께하는 성장 제19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

5월 26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 많은 세아 가족이 참석해 화합을 다지고 축제를 함께 즐겼다.



철강업계 임직원과 가족이 한자리에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축제,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2004년 이후 14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제19회 철의 날을 기념하고 철강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철강업계 임직원 및 철강가족 등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아도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씨엠, 세아 L&S 등 6개사에서 총 387명이 참가해 흥겨운 축제를 함께했다.

이날 대회는 참가비의 3%를 불우 이웃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철강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산업 생태계 강화의 의미 담아

올해 대회는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해 철강업계가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이다.

“우리 철강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이 파고를 넘어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중소 협력 업체 및 가공 업체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수요 산업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철강업계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오인환 사장,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등 철강업계 CEO 3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꾸준한 연습으로 좋은 성적 거둬

참가자들은 치어리더들의 시범 동작에 맞춰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마친 후 출발선으로 이동했다.

올해 대회 역시 5km와 10km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세아베스틸 에너지관리팀 김현선 계장의 아내 이주행 씨는 5km 여성 참가자 가운데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이주행 씨는 2016년과 지난해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다. 세아제강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윤호명 팀장이 5km 코스에 출전한 세아인 중 2위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세아창원특수강

영업4팀의 방재혁 사원이 '평소 조깅으로 연습한 효과'를 거두며 세아인 가운데 5km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 제강팀의 홍성호 기장은 10km 코스에서 세아인 중 가장 빨리 달리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10km 마라톤에 참가한 세아인 중 2위는 세아베스틸 에너지관리팀 김현선 계장이, 3위는 세아베스틸 제강팀 정우성 기장이 차지했다.

“한 달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마라톤에 처음 참가했다는 정우성 기장은 이렇게 말하며 좋은 기록과 완주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잔치

철강사랑 축구공 증정 행사, 철강사별 단체 줄넘기, 슬로건 쌓기, 다트게임 등 철강업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함께, 하는, 성장'이 각각 쓰여진 커다란 풍선공을 함께 굴리며 철강업계의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달궈진 철을 직접 두드려 호미를 만드는 전통 대장간 체험, 추억의 먹거리 코너,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키즈 존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축제의 흥겨움을 높였다. 철강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려 다양한 작품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철강산업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매년 마라톤 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공모전은 '미래지향적인 철강 이미지'와 '생활 및 예술과 접목한 철강 소재'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아의 하나된 힘이 빛난 자리

이날 대회에서는 세아의 화합과 단결이 특히 돋보였다. 18명이 한 조가 되어 치르는 철강사 대항 단체 줄넘기 대회에서 세아제강은 가장 많은 개수를 기록하며 1등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세아제강 참가자들은 권병기 대표를 번쩍 들어올려 행가래로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세아베스틸도 뛰어난 단결력을 선보이며 3위에 올랐다. 세아 부스 내에서는 세아 어린이 가족을 위한 장난감 증정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졌다. 또한 세아인들은 이회령 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다'를 함께 외치며 화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축제는 계속된다. 앞으로도 세아는 매년 5월 개최되는 철강 사랑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할 계획이며, 철강업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써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믿음과 신뢰의 리더 양성

2018 그룹 신임 팀장 교육

신임 팀장 교육이 전면 개편됐다. 세아는 신임 팀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역량 체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룹 신임 팀장들은 지난 4월, 곤지암밸리에서 실시된 본 교육에 참여하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역할에 따른 변화 필요성 인식

총 9개사, 25명의 신임 팀장들을 대상으로 2018 그룹 신임 팀장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총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그 첫 단계로 2주간의 Pre Session 과정이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담당 임원과 신임 팀장들은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기대 역할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팀장들의 역할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애로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신임 팀장들은 개인 및 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실습과 토론 중심의

다채로운 교과 운영

제 2단계 교육 과정은 4월 11일부터 3일간 곤지암밸리에서 집합 교육 형태로 운영됐다.

본 교육 첫날, CEO 특강을 위해 세아제강 이회령 부회장이 교육장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팀장이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신임 팀장들에게 팀원들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응원단장 같은 팀장, 재정비와 재충전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항공모함 같은 팀장, 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게소 같은 팀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직 내 세대 간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목도 신설됐다. 신임 팀장들은 세대 간 소통 드라마 '통해야 통한다' 과정을 함께하며 상사-부하 직원 간 역할극을 통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토론을 통해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팝 역사를 통해 리더십을 배우는 '감성 콘서트', 행복한 리더의 마음 관리 10계명을 알아보는 'Mind Power Up', 실천 다짐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해보는 '팀 리더의 변화실천' 등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다양한 실습 및 체험 중심의 특강도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학습 환경 마련

세아는 이번 교육을 위해 Leader's Change Tool Box를 제작하여 팀장 역할 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 및 실행 양식을 정리한 가이드 북과 만년필 세트를 제공했다. 또한 기존 팀장이나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신임 팀장도 상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환경 'SeAH Team Leader's Lounge'를 새롭게 구축했다. 6월 15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6개월간 3회에 걸쳐 워크숍도 운영된다. 신임 팀장들은 워크숍을 통해 팀워크 구축, 권한 위임, 성과 평가 등 각 회차별 실천 과제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 공유 및 보완을 통해 업무 현장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변혁 위해 변화의 시동을 걸다 디지털 토크 & 디지털 캠프

세아가 DT 센터(Digital Trans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해 DT 전략의 효율적 실행에 새로운 시동을 걸었다. DT 센터는 그룹 내 디지털 자산의 내재화를 목적으로 올해 2월에 설립되었으며, 그룹의 모든 사업 요소와 운영 요소에 디지털 DNA를 생성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일을 지원한다. 주요 역할은 디지털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변화 관리 활동(Digital Mindset)과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Work Smart)을 지원하는 것이며, DT 센터는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디지털 토크 및 디지털 캠프를 실시했다.



새로운 디지털 DNA 생성에 초점

4차 산업혁명에 비롯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에게 더 높은 효율성과 혁신적인 디지털 변혁을 요구한다. 이에 세아는 DT 센터를 중심으로 Digital Mindset 2018 추진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변혁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기반 구축에 나섰다.

DT 센터는 우선 내부 문화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변혁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세아인들의 이해와 동기 부여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도 디지털 톨 사용 활성화와 양질의 빅데이터 생산 환경

구축을 목표로 변화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세아는 지난 4월 18일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서 세미나 형식의 디지털 토크를 열었다. 금번 세미나는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조명함은 물론 유럽, 중국 등

타 철강사들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맥킨지 Senior Partner인 Karel Eeloot와 Michel Van Hoey가 연사로 초대됐다. 두 강연자는 세아 임직원들에게 '왜 철강 시장에서 디지털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제를 비롯하여 디지털 전환을 실행한 모범 기업 사례 등을 이야기했다. 이날 디지털 토크는 포항, 군산, 창원 공장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DT 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디지털 토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아 임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해외 견학을 통한 새로운 시각 개발

디지털 캠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디지털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고취하고, 철강 분야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4월 말에 진행된 첫 디지털 캠프에는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에서 총 15인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 세계 스마트 공장의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을 방문해 디지털 트윈, 조립 공정별 드라이브 시스템 등을 체험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SF 테스트 베드(OWL), DMG MORI, 폭스바겐, 피닉스컨택트 등을 차례로 견학하며 독일의 스마트 공장 비전 및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하노버 산업박람회도 참관했다.

올해 72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매년 4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산업기술전으로, Bosch, Oracle, Microsoft 등 전 세계 6,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해 저마다 혁신 기술을 과시했다. 특히 올해는 2018 하노버 물류박람회(CeMAT)도 동시 개최되어 무인운송 장비를 비롯한 최신 물류관리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디지털 캠프 참가자들은 '최신 트렌드를 직접 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등의 소감과 함께 '이번 경험을 향후 디지털

캠프 과제와 연계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 세아는 내년 4월까지 총 3차례의 디지털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며 워크숍 및 내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캠프 관련 내용을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최근 DT 센터는 메일/팝업을 통해 '세바시 1분(세아를 Smart하게 바꾸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교육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업무공간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도 계획하고 있다.

옛 사보로 알아보는 혁신과 도약의 순간들 세아의 광고

옛 사보에 수록된 광고만 보아도 세아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광고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세아인들의 결속과 혁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이번 호 세아가족에서는 세아가 새롭게 도약하는 순간을 담은 주요 광고들을 골라보았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상업적인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으며
그 기업이 걸어온 발자취 역시 광고를 통해 읽을 수 있지요.
세아도 임직원과 고객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사보를 통해 광고의 형태로 소개해왔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을 알리거나 세아인들이
내재화해야 할 가치를 전하는 등
사보의 맨 끝 페이지는 광고 지면으로 기능하며
세아의 굵직굵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 단열이중관 개발

1982년 동력자원부의 개발 의뢰에 따라 부산파이프는 국내 최초로 단열이중관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1984년 초 스웨덴의 에코파이프(Eco Pipe)사와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한 부산파이프는 서울공장 내에 단열이중관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발포기, 스프레이 발포기, 폴리에틸렌 용접기 등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1985년 1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파이프가 개발한 단열이중관은 단열성이 우수하고 방수 및 내부식성이 뛰어나 매립관의 수명을 월등히 연장시키는 한편, 장거리 수송 시 열 손실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대폭 절감시키며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파이프는 1986년 한 해 동안만 170여 개 업체에 단열이중관을 납품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FED (Far East District : 미 육군 곡동지역 공병단) 자재 납품을 승인받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1988년 11월 사보 부산파이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단열이중관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간편한 시공과 탁월한 단열성 등 부산파이프 단열이중관의 주요 특징 및 효과는 물론 지역난방 시스템, 이송관, 동파 방지 배관 등 다양한 용도로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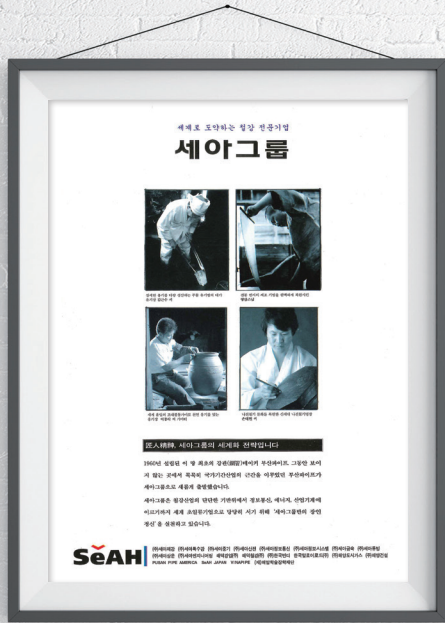
그룹체제 정식 출범

1995년 1월 1일, 부산파이프는 국내외 22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그룹체제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WTO 체제에 따른 세계화에 발맞추어 각 계열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파이프는 그룹체제 도입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수반한 공격적 경영 전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철강 분야는 적극적인 합리화 투자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비철강 분야로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부산파이프는 전략기획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그룹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임원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1월 14일에는 첫 그룹경영전략회의를 열어 그룹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1995년 8월 사보 21세기 세계화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부산파이프그룹의 광고가 소개되었습니다. 부산파이프, 세아알로이로드(세아ESAB), 한국번디(세아FS), 코암정보통신(세아네트웍스) 등 계열사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에서 정보통신, 에너지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부산파이프의 위상이 엿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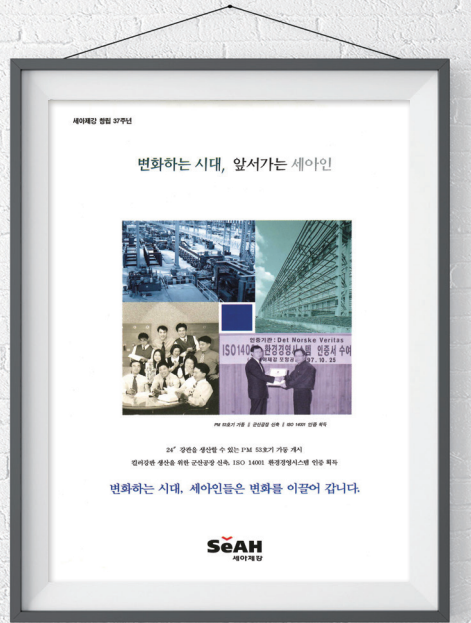


그룹 명칭 변경과 새 CI (Corporate Identity) 제정

그룹화 선언 이후, 전 계열사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CI 도입 작업도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 대표 사원 20인으로 구성된 CI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사보를 통해 그룹명을 공모하였으며, 사원 의식조사와 임원 인터뷰를 통해 기업문화를 진단함으로써 그해 7월, 그룹의 명칭과 함께 각 계열사의 사명이 새로 탄생하였습니다. 9월 말에는 CI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이 완성되면서 부산파이프 창립 35주년을 맞은 10월에는 새로운 CI에 대한 종합 발표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세아그룹은 CI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새로운 비전 제시로 사원들의 의욕을 북돋았습니다. 또한 전 계열사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인사 교류나 업무 협조도 훨씬 활발해짐은 물론 새로운 기업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7년 2월 사보 세아의 '창인정신'을 광고의 주요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유기, 한지, 나전칠기 등 각 분야 명장의 모습을 광고의 비주얼 요소로 활용하여 세계 초일류를 향한 세아의 의지와 세아인이 공유해야 할 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포항공장, 세계 유수의 강관공장으로

생산 능력 극대화를 위해 포항공장 제7공장 건설에 착수한 부산파이프는 1997년 11월 준공을 기하여 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 전기저항용접)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인 24인치 생산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파이프는 API 강관 및 대형 프로젝트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유수의 강관공장에서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1997년 8월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DNV (Det Norske Veritas, 노르웨이선급협회) 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국제규격으로, 포항공장은 인증 획득을 계기로 환경 관련 교육훈련 강화, 부서별 환경 프로그램 실천 활성화 등 품질 및 환경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사보 24인치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ISO14001 인증서 수여식의 모습 등을 통해 세아제강의 경쟁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와 선두기업의 자부심을 '변화하는 시대, 앞서가는 세아인'이라는 메인 카피로 표현하였습니다.



쿵푸의 고장에서 경쟁력을 외치다

Foshan SeAH Precision Metal

글 : Foshan SeAH Precision Metal 이병훈 관리부장

포산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미 28년 전부터 세아의 해외 법인 중 하나인
Foshan SeAH Precision Metal(이하 포산세아)이
이곳에 진출해 있다. 1990년 공장 설립 후 컴프레서
튜브의 강자로 사업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포산세아. 그곳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한다.



전통적인 상공업 발달 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Foshan SeAH Precision Metal(이하 포산 세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포산세아는 중국 광둥성(广东省, 광둥성)의 도시 중 하나인 포산(佛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산은 광저우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지요. 홍콩과 마카오가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당일 여행도 가능하답니다.

포산세아가 이곳에 진출한 지는 올해로 28년째이며, 현재 공장 근무자 160명을 포함하여 총 269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포산 지역에서는 중국 표준어인 푸통화(普通話, 보통화)보다 광둥어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외지인이 늘며 푸통화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광둥어를 쓰고 있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쿵푸와 요리의 고장

포산은 쿵푸의 도시입니다. 황비홍과 이소룡의 스승으로 익히 알려진 엽문(叶问)의 고향이 바로 이곳 포산이지요. 시내 한가운데에 주미아오(祖庙, 조묘)라는 이름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사당 안에 황비홍과 엽문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각종 무예 및 사자탈 공연도 관람할 수 있으니 포산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못 먹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광둥성의 요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쓰촨성과 함께 광둥성은 중국 4대 요리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중 광둥성 요리는 담백하며, 음식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둥성은 차 문화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찾집에 모여 간단한 다과와 함께 차를 마시는 자오차(早茶) 문화가 있고, 밤에도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이예차(夜茶) 문화를 즐깁니다. 차와 함께 먹는 디저트도 무척 다양합니다.

아열대성 기후인 이곳은 과일 역시 풍부합니다. 성인 팔뚝만한 망고, 사람 머리의 두 배만한 두리안 등 그 크기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나나, 두리안, 망고 나무를 키우는 집이나 회사도 많습니다.

사드 영향에도 자동차용 사업 규모 확대

1990년 공장 설립 후 포산세아는 컴프레서 튜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28년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슬로바키아, 태국 등 세계 각국으로 컴프레서 튜브를 수출하고 있으며 컴프레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요.

중국 내에서는 고객사의 저가 냉장과 판매 전략과 경쟁사의 공격적 단가 정책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시한 면취 공정 자동화 및 지속적인 생산 원가 개선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산세아는 중국 자동차 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BYD 등 중국 현지 자동차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사 및 제품 설명회,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며 포산세아의 제품 우수성과 기술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포산세아는 자동차용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세계 자동차 판매 1위국(2,888만 대)인 중국 자동차 시장을 무대로 신규 고객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품질 경쟁력 확보

중국은 무서운 경제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소득 및 생활 수준과 함께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지요. 이로 인해 매년 원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고객사에서도 단가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산세아는 공정 자동화를 비롯한 생산 효율성 개선을 통해 단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포산세아는 2016년 이후 중국 현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간 50만 대 이상을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 및 시험 장비를 갖춘 중국 청도 기술연구소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자동차 회사의 OEM 프로젝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 가공 공정 구축 작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열한 경쟁과 위협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포산세아는 이제껏 쌓아온 경험과 품질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전 시장에서는 1990년부터 생산한 컴프레서 튜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 및 연료 튜브의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포산세아의 활약과 성장을 앞으로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로 1위의 자부심을 지켜갑니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 TF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묵묵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해온 사람들이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신기술로 세아특수강의 기술 혁신을 이끈 4명의 세아인, 이들을 만나본다.

숨은 주역들과 함께 만든 성과

세아특수강이 국내 최초로 오일 청정 피막과 비인계 피막 신기술을 개발하며 기존 CHQ Wire 피막 기술이 지녔던 한계를 넘어섰다. 또한 두 가지 신기술을 통해 고객사 공정 단축 및 원가 절감을 이끌어내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신기술 개발을 주도한 4인의 프로젝트 팀원들에게는 올해 초 그룹 신년회의를 통해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회사 생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을 이끈 생산팀 진강원 팀장이 세아업적상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세아업적상은 팀원들이 받았지만 숨은 주역들의 공(功)이 컸습니다.”

김형준 사원은 요구 조건에 맞춰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준 설비팀과 고객사 반응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전달해준 영업팀에 고마움을 전한다. 오병곤 과장은 프로젝트 기간 중 늦은 퇴근과 휴일 근무에도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에게, 송재훈 계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 뜻으로 도와준 산세공정 식구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

오일 청정 피막은 기술과 약품 모두 일본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 덕분에 이제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 오히려 지난 4월에는 신규 피막 약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특히 비인계 피막 기술은 세아특수강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기술'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불필요한 공정을 단축해주고, 작업성 향상과 오염 문제 해결로 원가를 절감해주는 신기술에 고객사 반응도 호의적이다.

“고객사 담당자가 생산성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피막을 개발해주어 고맙다고 하더군요.”

고객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고객사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이를 수 있었던 성과라며 진강원 팀장이 이렇게 말한다.

비 온 뒤 땅은 더 단단하다

‘국내 최초’와 ‘독자 기술 개발’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보고 따라 할 성공

사례도, 도움이 되는 조언도 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 당연히 많은 고충이 따랐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2016년 초부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적절한 배합률을 찾기 위한 끝없는 테스트가 이어졌다. 고객사 테스트 일정 바로 전날 설비 문제가 발생해 새벽까지 진땀을 흘린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히 고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는 피막과 설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근육처럼 자신감이 붙었다.

“자료와 정보가 충분하다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또 따라 잡히기 쉬운 기술에 그치고 말죠. 최초의 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진강원 팀장의 이야기에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난다.



업계 1위의 자존심과 책임감

진 팀장은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로 ‘자존심과 끈기’를 꼽는다. 신규 피막 기술 개발은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수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였다.

“외국에 의존해온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열정, 품질 차별화를 통해 업계 1위를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오병곤 과장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다. ‘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념과 ‘끝까지 해내겠다’는 소신으로 프로젝트의 임했다는 송재훈 계장. 그의 이야기에든 업계 1위로서의 사명감이 담겨 있다.

신규 피막 기술이 회사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몫은 아직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진강원 팀장은 이 기술이 반드시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관련 산업에서 친환경, 고강도 소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 그때가 되면 이미 신규 피막 기술을 확보한 세아특수강의 시장 내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혁신

오일 청정 피막과 관련하여 팀원들은 주원료 국산화를 목표하고 있다. 독자 개발한 비인계 피막 역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국내 확대 적용은 물론 중국, 태국 등 해외 공장에도 해당 기술을 접목시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싶다.

“경험과 지식을 늘려가며 조금 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이후 테스트를 진행해나겠습니다.”

김형준 사원은 이렇게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직접 프로젝트 팀을 꾸려 이끌어보고 싶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힌다.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팀원 모두 이번 프로젝트가 일화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혁신과 도전은 오늘날의 기술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베테랑의 거침없는 발걸음
세아베스틸 품질보증2팀
함한섭 기장

바빠 걷는 와중에도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든다. 당당하고 경쾌한 발걸음과
진지하고 차분한 목소리의 소유자.
세아베스틸 품질보증2팀 함한섭 기장의
몸짓과 말투에는 23년 현장 베테랑의
경험과 지혜가 진하게 배어있다.

아내의 결혼 조건이 '세아베스틸 입사'

성큼성큼 주저없이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의 발걸음.

세아베스틸 품질보증2팀 함한섭 기장의 걸음은 무척이나 빠르다.

그런가 하면 빠른 걸음과 달리 말투는 차분하고 진중하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의 여유가 느껴진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사했지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인 군산을 떠났던 함 기장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하나였다. 당시 교제하던 상대가

세아베스틸 입사를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랴’라는

심정으로 세아베스틸에 입사한 지 23년째.

어느덧 쉰 셋의 나이가 된 그에게 세아베스틸은

다시 찾은 고향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을 마주해온 시간

평소 함 기장이 후배들에게 건네는 조언은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라'이다. 굳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그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다. 적지 않은 나이에 세아베스틸에 입사해 맡게 된 업무는 하나같이 생소했다. 하지만 함 기장은 그 낯섦이 즐거웠다. 새로운 일을 배워가며 신성한 노동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냥 재미있었다. 처음 맡은 일은 비파괴 검사 업무.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재료 속의 결함의 크기와 종류 등을 평가하는 일이었다. 공부야 필요했다. 함 기장은 퇴근 후 시간을 쪼개가며 관련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로도 그는 불꽃 테스트 검사, 최종 출하 제품 검사 등 제강 파트의 검사 업무를 두루 담당하며 금속 및 자기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차례차례 취득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빨리 기장 직에 올랐다. 입사 7년 차에 기장이 되고 특수강 제품 검사반의 총괄 업무를 맡게 된 지금까지, 그가 세아베스틸에서 보낸 세월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감독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부정(父情), 화합의 동료애

세아베스틸 입사를 권했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함 기장. 대개의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다 자란 아이들에게 예전만큼 살갑게 대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그는 때로 손 편지와 장문의 메시지로 따뜻한 부정(父情)을 전하곤 한다. 얼마 전에는 연구소와 품질, 생산 부서 등 업무 접점이 많은 부서와 협력 업체를 아우르는 야구 동호회 '연품연가'를 결성했다. '연품연가'는 연구소와 품질에서 한 글자씩 따오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지었다. 함 기장은 여기서 감독과 투수를 겸하고 있다. 다른 사내 야구 동호회와 친선 경기도 열고, 군산 지역 여러 관공서 야구단과 교류전도 가진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호흡으로 뛰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동호회의 멤버 수는 짧은 시간 동안 74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험으로 얻은 위기 극복의 마음가짐

"기본과 원칙 지키기, 즐거운 현장 만들기 운동 등 현장 주도적 캠페인을 실행해나가고 싶습니다." 4년째 세아베스틸 기장 협의회 회장을 맡아온 함 기장이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감독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요즘'이라고 답한다. 매 순간 착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그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대답일 터. 세아베스틸과 함께한 지난 세월, 고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뿌듯함을 느꼈던 때가 더 많다고 그는 말한다.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을 때와 전국 품질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을 때는 큰 자부심을 느꼈다. 자주 검사 안정화를 이루었을 때, 선후배 기장들과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운동을 추진했을 때의 감격도 빼놓을 수 없다. 그 모든 순간마다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요즘' 힘든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생산성 증대를 이루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오랜 세월 세아베스틸 현장에서 일해온 그는 그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여행지 강원도 원주

수도권 근교 여행지를 찾는다면,
대자연 속에서 문화적인 감성도 즐기고 싶다면,
강원도 원주를 고려해볼 직 하다.
강릉선 KTX 개통으로 성큼 가까워졌지만
아직 그 사실이 덜 알려져 있는
지금 이 원주 여행의 적기일지 모른다.
세아메탈을 품은 도시 원주에서 느릿느릿 걸으며
일상 탈출의 즐거움을 만끽해본다.

📍 섬강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기차길



원주의 재발견

강원도 원주는 그간 여행지로서 크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소금산 출렁다리, 뮤지엄 산(SAN) 등 독특한 관광자원들이 알려지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원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강원도와 한양을 잇는 거점이자 강원도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강원도라는 지역명 또한 강릉과 원주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원주는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요지여서 늘 쟁탈 분쟁이 있던 곳입니다. 강원감영(지금의 강원도청)을 원주에 설치한 것도 한양과 교통이 좋아서였지요. 지금도 원주는 경기도와 충청도

에서 접근이 쉽고, 전국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목악산 문화관광해설사의 말이다.

100m 상공 위 아찔한 출렁다리

작년 말 강릉선 KTX 개통과 함께 원주(만종역)는 청량리에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차로 달리면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서원주 IC까지 약 50분. 그야말로 당일치기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먼저 원주를 떠들썩하게 만든 명물, 소금산 출렁다리부터 가보자. MBC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청소를 하며 출렁량을 치던 그곳이 바로 여기다.

200m 길이의 다리가 암벽 봉우리 사이에 아찔하게 놓여있는데,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걷는 사람, “출렁다리

니가 출렁거리지!”라며 장난스럽게 웃는 사람들이 섞여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공중에 떠 있다는 묘한 기분을 즐기며 강원도의 신록을 감상하는데, 문득 산바람이 불어와 가슴속을 뺨 하고 뚫어준다.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가 덜 붐비는 편이다.

대자연 속에 꼭꼭 숨어든

힐링 포인트

이번에는 느리고 문화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뮤지엄 산으로 향한다. 이곳은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전원형 뮤지엄으로, 번잡한 일상을 뒤로 한 채 모처럼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는 노출 콘크리트, 돌, 바람, 물이 건축물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건축물에 자연이 스며든 듯, 자연에 건축물이 스며든 듯 감각적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싱가포르 미술 매거진 The Artling은 이곳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의 4대 뮤지엄’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건축물 해설 투어에 참여해 산책 이상의 감동을 즐긴 뒤, 전시를 감상하고 노천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인문학 여행지, 이색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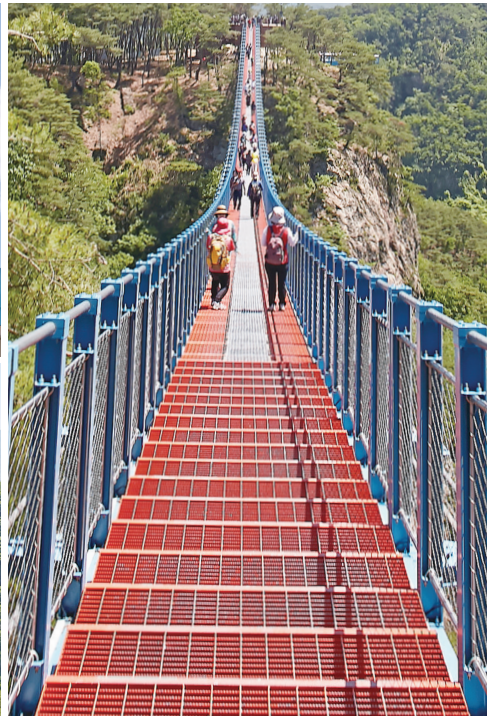
하루가 짧다

스릴감과 힐링이 교차하는 시간에 이어 저녁에는 전통시장에 가서 메밀전병 등 강원도 특유의 먹거리를 맛보면 완벽한 하루 여행이 된다. 이 밖에도 삶에 촉촉한 물기가 필요하다면 박경리문학공원에서 인문학의 내공을 쌓아보자.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원주레일바이크도 좋은 선택이다. 길의 대부분이 내리막길이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아기 돼지들의 달리기 시합을 구경할 수 있는 돼지문화원도 이색 여행지로 제격이다. 자연이 주는 위로와 문화적인 감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도심 근교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열차표부터 끊어야겠다.

SeAH in WONJU

세아메탈 원주공장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산2로 97
033-731-8500



엄마의 사랑을 담은 건강 음료 로푸드 식초 만들기

세아 M&S 영업2팀 박세령 대리 가족



건강한 생활의 기본은 건강한 먹거리이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밥상은 패스트푸드와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되기 일쑤.

이런 때일수록 몸에 득이 되는 음식을 잘 골라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세아 M&S 영업2팀 박세령 대리 가족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로푸드의 세계에 도전해본다.



살아 숨쉬는 자연 건강식, 로푸드

로푸드(Raw Food)는 효소 및 영양 성분이 살아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건강식을 말한다.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45℃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로푸드의 원칙. 육류와 유제품, 달걀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농 천연 재료를 추구한다.

모든 음식을 생으로 조리하지 않고 먹다니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만이나 아토피, 각종 현대 질병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써 로푸드 열풍에 동참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세아 M&S 박세령 대리 가족도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로푸드의 세계를 체험해보기로 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가족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남편 박세령 대리와 건이, 민아 남매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 박하나 씨가 이렇게 말한다. 외식보다는 집밥으로, 굳건질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주부 경력 11년 차 하나 씨. 그런 그녀이기에 남편에게 오늘 체험 소식을 듣고 흔쾌히 참여를 결정했다.

동생바라기 건이, 미소 천사 민아

하나 씨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특수교사다. 맞벌이로 바쁜 일상이지만 아이들과 남편을 위한 먹거리만큼은 유독 신경을 쓴다. 건이와 민아가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고 건강한 것도 그런 엄마의 사랑과 관심 덕분일 것이다.

아빠를 닮아 흰철한 키를 자랑하는 큰아들 건이는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10살 소년이다.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열성 팬인 동시에 산하 지부 유소년 축구팀에서 뛰고 있다. 장래희망도 호날두처럼 볼 감각이 뛰어난 선수가 되어 바르셀로나 팀에서 활약하는 것. 그런 건이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여동생이다. 동생이 태어난 후 건이가 좋아하는 사람 1순위는 엄마아빠를 모두 제치고 언제나 민아가 차지한다. 엄마에게 ‘동생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상장을 만들어드렸을 정도로 동생 사랑이 각별하다. 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네 살배기 민아는 감쪽한 미소의 소유자. 투정을 부리다가도 민아가 한번 방긋 웃으면 주변의 공기가 단번에 달콤해진다. 누구라도 행복시키고야 마는 막내딸만의 사랑스러운 위력이다.



당분은 적게, 영양은 고스란히

“이 작은 콜라 한 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식초 만들기 체험은 질문으로 시작됐다. 콜라 한 캔에 각 설탕 6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설명에 가족 모두 깜짝 놀란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도 섬유소와 영양 성분은 모두 파괴되고 과당만 남아있어 설탕 물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당분은 적게, 식이섬유와 영양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로푸드 식초가 제격. 오늘 체험에서는 파인애플 식초와 콤부차를 만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유리병 입구 크기에 맞춰 파인애플을 잘라준다. 작게 자른 과육과 착즙기를 이용해 짜낸 파인애플 주스로 유리병의 절반 가량을 채우고, 자연발효 식초와 개인 설탕을 1:1로 섞어 나머지 절반을 채운다. 개인 설탕은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정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유기농 설탕으로 미네랄이 풍부하다.

이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파인애플 식초 완성. 냉장 보관

해두고 물과 1:1의 비율로 희석해 마시면 피로 회복은 물론 소화에도 좋은 건강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다음은 콤부차를 만들 차례. 효모 배양체인 콤부는 차로 만들어 마시면 체내 독소를 배출해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한다. 중국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매일 마신 차로도 유명하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취향에 맞는 홍차나 허브 차를 우려낸 후 코코넛 설탕과 6:1 정도의 비율로 섞는다. 유리병에 콤부 배양체를 넣은 후 찻물을 부어주면 끝. 이때 찻물이 뜨거우면 콤부의 효모균이 죽게 되니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사용한다.

“설탕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걱정스러운 듯 하나 씨가 묻자 ‘안심해도 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탕은 콤부의 배양을 위한 영양분일 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단맛은 모두 사라지고 새콤하게 톡 쏘는 콤부차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다만 배양 중에는 콤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유리병의 윗부분을 공기가 통하는 면포로 덮어주어야 한다.

생각 주머니가 큰 사람으로 자라렴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체험을 마친 하나 씨가 이렇게 말하며 ‘오늘 만든 식초가 남편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한다. 이날 체험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건이는 ‘아빠 덕분에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고맙워요’라고 말한다. 아빠의 회사 배지를 학교에 달고 갈만큼 아빠 사랑이 남다른 건이. 그리고 누구보다 이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 사랑스러운 미소의 민아. 박세령 대리는 두 아이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

10월 연휴를 이용해 박세령 대리 가족은 사이판을 여행할 계획이다. 넓은 세상, 다양한 사람과 만나며 건이와 민아가 마음과 생각 주머니를 키우는 양분을 얻었으면 한다. 두 아이가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엄마아빠의 소망처럼, 이날 만든 로푸드 식초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행복 음료’가 되길 바라본다.

📍 로푸드팜 : 서울 마포구 토정로3길 10 T. 02-336-1210



굿바이 뱃살 프로젝트 복부 운동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는데 두툼한 배가 신경 쓰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는 뱃살!
곧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수영복을 입을 자신이 없으신가요?
세아 피트니스 센터 이홍표 매니저와 함께
올 여름 몸짱으로 거듭나보세요.

복부 비만이란?

과식과 잘못된 식생활, 운동 부족, 지나친 음주와 흡연 등은 복부 지방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며 복부에 쉽게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복부 비만은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과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일하는 분
- ☒ 잦은 음주와 흡연을 하시는 분
- ☒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식을 즐기는 분



이홍표 매니저는 운동처방 1급,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2급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로 전국체전 복싱 종목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1997년 춘계전국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60kg급 3위, 2000년 YMCA 보디빌딩대회 -65kg급 2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세아인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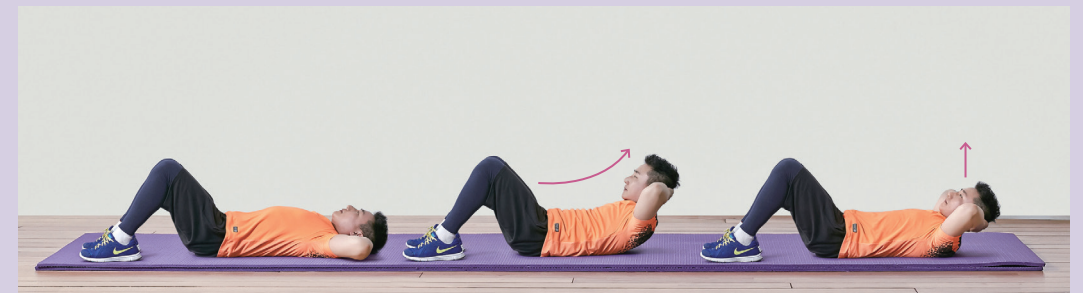
허리둘레는 줄여주고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복근 단련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SEATED KNEE-UP 상복부와 하복부를 동시에 단련하는 시트드 니업



- ① 의자 끝부분에 걸쳐앉아 양손으로 엉덩이 옆 부분의 의자를 잡아줍니다.
- ② 복부에 힘을 주면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올려줍니다.
- ③ 복부에 자극을 느끼면서 무릎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CRUNCH 윗배를 쏙 넣어주는 크런치



- ①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 ② 어깨가 바닥에서 약 10cm 떨어지도록 등을 둥글게 구부리면서 윗배에 힘을 줍니다.
- ③ 윗배에 긴장을 느끼면서 천천히 몸통을 눕힙니다. 이때 머리가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PLANK 멋진 복근을 만들어주는 플랭크



- ① 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깍지 끼고 팔을 굽혀 어깨너비로 벌려줍니다.
- ② 무릎을 펴고 발가락만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수평 자세를 유지합니다.
- ③ 원래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룹뉴스



제19회 ‘철의 날’ 기념식

지난 6월 8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19회 철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품 차별화로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총 29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으며, 세아제강 김웅 차장, 세아창원특수강 김진수 주임, 세아씨엠 오세연 직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을 수상했다.

세아제강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볼링대회’ 실시

세아제강 본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팀별 게임을 통한 조직 소통 강화 및 리프레시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매주 진행된 경기 과정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여 운영되었으며 최종 결승전을 통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볼링대회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직원 간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



품질 부문 Best Supplier 상 수상

지난 5월 24일, 세아베스틸은 NTN으로부터 품질 부문 Best Supplier 상을 수상하였다. NTN은 연간 7조 원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등속조인트 글로벌 기업으로, 세아베스틸은 일본에서 1개 철강 회사만이 생산 가능한 TIR 충족 제품을 지난해 개발 및 공급하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아베스틸은 NTN에 약 6년간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품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신뢰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



‘어르신 건강도우미 약 상자’ 나눔 활동 진행

지난 5월, 세아창원특수강은 도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500세대에 ‘건강도우미 약 상자’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다. 건강도우미 약 상자는 격월로 진행하는 테마형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파스, 밴드, 상비약과 응급처치 물품 등이 포함되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시, 군 자원봉사센터에 키트를 전달하는 한편, 봉사자들이 직접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세아씨엠



소그룹 족구대회 개최

세아씨엠은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주 2회 소그룹 족구대회를 진행했다. 세아씨엠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는 예선을 거쳐 결승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족구대회를 통해 협력사 구성원들과 업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 L&S



소통 강화 워크숍 실시

지난 5월 19일, 세아 L&S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4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다. 세아 L&S 임직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회사의 미래, 경영환경, 경영 실적, 주요 이슈 사항 등을 공감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잠시나마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 산책, 보물찾기 등의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